

“일상 속 친근함 갖춘 도자 만들고 싶어요”

예술인의 방

<5> 도예가 정지운

한국적 전통미-현대적 소재 융합
공모전 출품 통해 작품 기량 닦아
작업방향 바꾸며 연구·변화 시도

“도예는 다른 예술과는 다르게 실용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통을 모티브로 하되 새로운 양식을 통해 일상에 속 친근한 도자를 만들고 싶어요.”

도예가 정지운 작가(46·도예 공방 더 자기 대표)는 지난 2016년 빛고을공예창작촌에 입주 후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작업을 펼치며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 2013년 첫 개인전 ‘함 Story’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70여 회가 넘는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는 제52회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해 대통령상을 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에는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정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도 명망 있는 도예가로서의 주목받고 있다.

정 작가는 한국적 전통미의 감각이 묻어나는 달항아리에 현대적 소재를 도입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펼치고 있다. 작업실은 광주 남구 양과동 빛고을공예창작촌이다.

정 작가는 “달항아리는 제작과정은 다른 도자와 비교했을 때 어렵지만, 가마에 들어가서도 형태나 색의 변화가 뜻밖의 미적 충격을 안겨 준다. 그런 변화 기법이 재미있어 달항아리의 매력에 빠졌다”며 “흙과 유약 성분, 굽는 온도 등 전통적 방법과 달항아리의 형태를 숙안과 찻잔 등 현대적 소재에 더해 대중성과 생산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에야 왕성한 전업 작가로의 입지를 다져가는 정 작가지만 과거엔 대학 강사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열망에 작가로서의 도전을 했다. 정 작가는 미술대전과 대한민국 디자인문화대전 등 전국 공모전의 문을 두드렸다.

정 작가는 “작품과 완성도 창의성 등 작가의 기량을 냉정히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공모전이다”며 “공모전 또한 선호하는 스타일과 기준이 다양하다. 작가로서 작품의 평가도 냉정하게 받을 수 있지만, 경쟁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수상작을 보면 나만의 노하우도 쌓이고 더 발전하는 기회가 돼 변함없이 공모전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의 문도 매년 두드렸



정지운 작가가 빛고을공예창작촌 자신의 작업실에서 작업한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고 광주 지역대회 장려상 등 꾸준한 수상을 이어왔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발전시키려는 각고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정 작가는 지난해 열린 제52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본선에 광주 대표로 올라 대통령상을 받았다. 당시 출품작은 ‘차(茶)곡(穀)차(茶)곡(穀)’이라는 도자 작품으로 다기와 주병 그리고 찬합 세트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형태로 디자인된 형태미와 신비로운 색감이 아름답고 실용성까지 갖춘 수작으로 평가했다.

정 작가는 “이번 작품에는 저의 경험과 삶이 녹아있다. 다기를 연구하기 위해 ‘차’ 연구 모임에 들었다. 원래 낮을 조금 가리는 편인데 차를 공부하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진다는 걸 알았다. 술과 차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도구다. 이를 기반으로 실용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

각을 가졌고 그 생각이 통했다”고 말했다.

정 작가는 작업의 방향도 바뀌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 작가는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물레 성형을 기본으로 배웠다”며 “요즘엔 석고 틀을 사용해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산업혁명 때 등장한 석고 틀 방식의 도자기법은 물레만으로 표현이 어려운 형태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대량생산도 가능한데 흙의 물성을 이해하며 작업해 나만의 방식을 연구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지역에도 우수한 작가들이 많이 있다는 걸을 느끼는 데, 수도권보다 나아갈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 지역작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기회와 기반이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님’



송강정

허소미

지아비 그리는 심정으로
노래하는 연금지정 가슴앓이
송강 정철 선생, 사미인곡
하세월에도 변치 않을 그 음성
소나무 푸른 철개로 받들고 썼네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공모...5월 19일까지

드영미술관은 오는 5월 19일까지 2023 청년작가 전시 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광주 동구 미술관·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역량있는 신진청년작가를 발굴·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미술관의 취지에 따라 지역 미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젊고 패기 있는 작가들의 새롭고 다양한 조형 언어를 수용해 이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은 만 40세(1982년생) 이하의 광주 출생 또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청년작가로, 개인전 1회 이상의 시각예술분야 전시경력(학위청구전 제외)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작품 소개 및 이미지를 포함한 포트폴리오와 공모신청서 등 필수제출서류를 첨부해 미술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 발표일은 5월 26일이다.

/이나라 기자

광주시 ‘미술도시 광주’ 선언

23일 상생 협약식

광주시가 ‘미술도시 광주’로 거듭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최근 시청 문화도시정책관 회의실에서 ‘미술도시광주 선언 및 상생협약식’을 위한 민관학협치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민관학협치회의는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을 비롯해 시립미술관, 광주미협, 광주민미협,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광주박물관미술관협회, 건강한 미술생태를 위한 화랑모임, 전남대, 조선대 등 미술관

련 기관의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광주가 미술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온 데 따른 민관학협치 체계구축으로 ‘미술도시광주 선언’에 뜻을 모아지며 마련됐다.

‘미술도시 광주 선언 및 상생협약식’은 23일 오전 11시 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가질 예정이다. 향후 상생협약 기관들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거쳐 미술도시광주의 정책비전 창출과 활성화에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광주시립미술관은 최근 시청 문화도시정책관 회의실에서 ‘미술도시광주 선언 및 상생협약식’을 위한 민관학협치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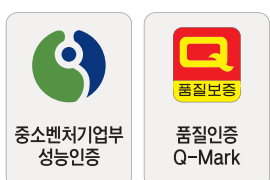
케이옥션 경매 박수근 작품 등 114점 출품

미술품 경매사 케이옥션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열리는 3월 경매에 114점, 약 102억원어치 작품이 출품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추정가 3억5,000만~5억5,000만원에 출품된 유영국의 1980년작 ‘Work’를 비롯해 박수근과 이중섭, 김환기, 도상봉, 장욱진, 오지호 등 근대 작가 7명의 작품이 경매작에 포함됐다.

노상에 앉아있는 두 남자와 일을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두 여인, 아이들이 등장하는 박수근의 1965년작 ‘무제’(추정가 1억~3억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이라고 케이옥션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에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제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 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충청남도 서북구 망향로 903-6 (오목리9)